

벤.치.관.련.정.책.

● 중기청, 중소기업 전용 R&D 펀드 130억 조성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연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포스코·인켈과 함께 중소기업의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13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구매조건부 R&D 협력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에서 투자된 기술개발 과제가 성공했을 경우, 대기업이 개발제품의 구매까지 책임진다는 조건이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청은 포스코, 인켈과 함께 '민·관 공동 구매조건부 R&D 협력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허남석 포스코 부사장, 하재욱 인켈 대표 등 협약 당사자를 비롯해, 안운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업계 대표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2개, 총 13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청과 각 대기업이 2:1의 매칭 비율로 참여하여, 포스코와 100억 원, 인켈과 30억 원 규모로 결성했다. 이번에 결성된 펀드자금으로는, 대기업이 구매를 희망하는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중진공, 패밀리 기업 70개 업체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12월 24일 여의도 본사에서 2008년도 '중진공 FAMILY 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중진공 FAMILY 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중진공이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성장공유형 자금 등을 지원한 업체로 2008년말 현재 (주)빅슨(대표: 여수중)을 포함한 70개 업체다. 미래성장가치를 높여 성장이익을 공유하고, 중진공과 지원기업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중진공 FAMILY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09년도부터 추가적인 투자유치 기회제공과 기업공개 관련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2008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한국경영컨설팅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상의 투자유치 활동 등을 병행 지원한다.

중진공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환사채 인수방식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여 올해 40개 업체 201억 원을 지원 결정했다.

● 특허청, 2010년 만료 138건 물질특허 상세 정보 공개

오는 2010년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중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제약 등 관련 업계가 물질특허 정보를 토대로 한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0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총 138건의 주요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관련 DB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12월 4일 밝혔다. 이 정보에는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정보와 함께 특허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의약, 농약의 물질특허·허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138건을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약분야 물질특허가 51.4%(7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명공학 분야 20.3%(28건), 농약 분야 15.9%(22건), 플라스틱 분야 4.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의약분야 물질특허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개발사: 화이자), 항암제인 탁솔유도체(개발사: 론-폴랑), 폐혈증 치료제인 카르바페넴(개발사: 스미토모 제약)이 있다.

● 관세청, 중소기업 지원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키로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 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관세환급

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 오고 있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내년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계기될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867개로 현재보다 132개(3.5%) 품목이 증가하게 되며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증가되면 증가된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종전에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계기된 수출품목은 3,735개(전체 수출품목 8,914개의 42%)로, 올해(1~11월) 9,940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6,943개의 59%)이 1,661억 원(총환급액 2만 4,527억 원의 6.8%)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에 의해 환급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보, 실효된 채무감면 약정 부활키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12월 5일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례조치'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금번 조치는 경제사정 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채무감면약정 효력 부활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지연이자 또는 지연 분할상환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경우 당초 채무감면약정 효력 회복 ▲지연 분할상환금 일시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실효된 채무감면약정의 효력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지 못한 상환원금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지연이자 납부만으로 채무감면효력 회복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원.

◎ ETRI, 세계 최초 익명 인증 기술 개발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SP, Service Provider)의 실수나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인터넷에 비방, 허위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12월 15일, 사용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익명 인증 기술'과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조건부 실명 추적'이 동시에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본 기술은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익명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할 '조건부 익명 키(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을 받아서 현재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반면, 사용자의 욕설이나 비방 글 게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는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는 '조건부 실명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실명을 추적하고 불법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익명 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기계연, Lloyd's Register와 협약 체결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이상천)은 12월 8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영국에 본사를 둔 Lloyd's Register(로이드 선급협회, 대표 Robin Pickup)와 산업기계 및 화학플랜트 기계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국내의 기계류분야 신뢰성 인증과 Lloyd's Register의 인증 마크 협력증진, 신뢰성 시험평가 기술협력,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대해 양측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국내 신뢰성 평가기관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술협력 체결로 국내 신뢰성 평가기술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대형플랜트 및 산업시설 기계부품에 대한 고장원인 분석진단 기술, 수명평가 및 유지보수기술 등의 안전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RISS, 액션 플랜 프로그램 실시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정광화)가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및 프로세스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선정해 해결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액션플랜(Action Plan)을 실시했다. 액션 플랜이란,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문제점을 발굴·포착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창의적인 의사결정방식이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을 상위 관리자 또는 경영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행 당사자인 직원들이 참여해 의사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KRISS는 그동안 지속적인 토의 및 회의를 거쳐 연구부서 및 서비스부서에 맞는 KRISS 대외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대형과제 유치 및 기획방안,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가치 극대화 방안 등 총 5개 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성과를 거뒀다.

● 생명연, KAIST와 KRIBB BINT 융합연구소 설립

카이스트(총장 서남표)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원장 박영훈)은 12월 19일 KAIST 제1회의실에서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중심의 기술융합 분야에서 새로운 학연협력모델 창출을 위한 KAIST-KRIBB BINT 융합연구소 설립식을 개최했다. KAIST-KRIBB BINT 융합연구소 설립은 양 기관이 학연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5일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서, 기존 학연협력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보다 실질적인 양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화된 협력방안의 하나다. 바이오 중심의 기술융합 분야에서 새로운 학·연협력모델을 창출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기여 및 고급 다학제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KAIST-KRIBB BINT 융합연구소는 KAIST 교수진과 KRIBB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벤.처.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확대 및 조기 지원

경기도는 국내·외 금융 불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2월 17일부터 조기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1월초부터 시행되지만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용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도는 12월초 특별자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0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금융 불안 및 국내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경기 부양과 아울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08년에 비해 1,800억 원이 증액된 1조 5,000억 원

으로 운전자금 7,8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200억 원이다.

● 대전시, 미국 생명공학기업 6천만불 유치 투자협약

대전광역시는 단백질 의료분야(제형개발)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재미과학자 장병선 박사가 대전에 R&D센터와 생산시설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내년도 상반기로 예정된 첨단의료산업단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지난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성호 시장과 미국 LyoTip(주) 대표인 재미 과학자 장병선 박사, 그리고 장 박사의 제남 장병하 LyoTip Korea(주) 대표 및 바이오 관련기관 대표 등 30여명의 생명공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LyoTip Korea(주)의 R&D센터 및 생산시설(약 6,000만 달러 규모) 입지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사 대표인 장박사가 세계 유수의 생명공학기업에서 20여 년간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개발한 LyoTip (TM) (국제특허)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장박사 제남인 LyoTip Korea(주) 장병하 대표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R&D센터와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대전시는 이에 따른 연구사무소 및 생산시설 입주에 필요한 공장부지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남도, 첨단 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라남도가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진에 2018년까지 첨단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조성기로 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본격화 하고 있다. 전남도는 12월 18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환경산업을 미래 전남도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환경산업 시장에서 전남이 환경산업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안 수변환경 및 자원재생산업 ▲친환경농업 산업 ▲탄소 관련 산업 ▲우주환경 산업 ▲친환경모니터링 산업 등 5대 중점분야를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5대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계측기, 바이오 에너지, 농업자동화시스템, C&N 자원화 및 자원재생, 간접 취수 수자원 확보, 물 재이용 및 해수담수화 플랜트, 이산화탄소 저감·처리산업과 탄소거래 교육 및 전문기관 육성, 환경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환경연구기관 유치 등 10대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 울산시, 산학연관 협력 통한 울산 산업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울산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관 협력사업(URIGO 2030) 보고회 및 R&D 역량강화사업 발표회'가 개최됐다. 울산시는 12월 18일 자동차부품혁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박맹우 시장, 산학연관협의회, 중소기업체, 연구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관 협력사업(URIGO 2030) 보고회 및 R&D 역량강화사업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주요 시설(연구동, 공장동) 투어에 이어 '기업부설 연구소 개설 현판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산학연관 협력사업 보고회에 이어 15대 전략기술개발사업 협약이 체결됐다. 3부에서는 R&D 역량강화사업 성과 발표 및 '연구과제 전시회'가 개최됐다.

● 부산시, 지역산업기술로드맵(RTRM) 공청회 열어

부산시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09~'12년) 특화분야의 R&D 관련하여 중장기 기술발전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12월 18일 부산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주관으로 벅스코 센텀호텔(제우스룸 4층)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부산시, 관련업체, 연구소·센터, 산·학협력단 등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해양바이오, 초정밀융합 부품 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성 설정 등 기술로드맵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확정되는 RTRM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기술개발사업과 연계된다.